

## 대전디자인진흥원 지원사업, 국제무대에서 '성과'

윤 황해동 기자 | 승인 2022.07.05 17:55

세계일류디자인양성사업 회원들,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서 본상 2개 등 받아



차정욱 作 PLIP. 사진=대전디자인진흥원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김다현 作 Me-mo. 사진=대전디자인진흥원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 디자이너양성사업이 국제무대에서 빛을 발했다.

진흥원은 '대전·충청권 세계일류디자이너양성사업(KDM+)' 회원들이 국제 디자인공모전인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 2개와 finalist5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차정욱(홍익대 디자인컨버전스학부 졸업) 회원과 김다현(홍익대 디자인컨버전스학부) 회원이 각각 'PLIP', 'Me-mo'란 작품으로 Bronze를 수상했다.

디자인 개발 시 최우선으로 사용자의 잠재적 니즈와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 작품이다.

세계일류디자이너양성사업(KDM+)은 전국의 디자인 학생들을 선발, 실무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디자이너로 양성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이 대전·충청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윤병문 진흥원장은 "급변하는 사용자의 요구와 혁신 기술,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 디자인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디자인 인재들이 국제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한편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IDEA, 독일 레드닷과 함께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 3대 디자인 어워드다. 각 분야 작품의 조형성, 혁신성, 심미성, 신기술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해마다 우수 디자인을 선정해 발표한다.



황해동 기자